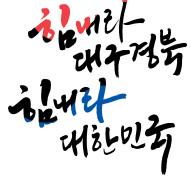


 국토교통부		보도 설명 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4. 29(수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항공운항과	담당자	·항공운항과장 오성운, 사무관 최진호 ·☎ (044) 201-4259, 4312	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A380 조종사 자격유지 위해 다각도 해소방안 마련 시행

- ICAO 긴급 안전지침(4.21) 적용하여 A380 조종사 자격유지 가능성 검토 -

< 보도내용(연합, 한겨레, 4.29) >

◆ A380 조종사 자격박탈 위기... 국토부 “빈비행기라도 띄워라”

- 코로나로 장거리 노선 운항이 중단되어 “90일에 3회 이착륙” 규정 준수에 어려움
- 조종사 자격유지를 위해 공기비행으로 국내 이착륙 훈련 추진 중

□ 최근 코로나-19 여파로 인한 아시아나 A380 운항중단에 따른 조종사 자격 유지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□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는 “운송용 항공기 조종사는 기량 유지를 위해 90일 내 최소 3회의 이착륙 경험과 매년 2회의 기량 심사를 받아야 한다.” 고 국제표준으로 정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도 이를 국내 항공안전법에 반영하여 이행 중에 있습니다.

* 국제민간항공기구 : 국제 항공운송에 필요한 국제표준 제정 등을 담당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('47년 설립)로, 현재 193개 회원국 가입(우리나라는 '52년 가입)

□ 최근 ICAO는 코로나-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운항중단이 확대되면서 관련 국제표준 준수가 곤란해지자 조종사 자격 유지에 관한 긴급 안전지침을 발행('20.4.21)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 제공하였습니다.

○ 동 긴급지침에 따르면, 각 국가는 공기비행(non-commercial)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조종사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,

- 이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자격 유지 기준을 일부 완화하되,

△기장·부기장 2명중 1명은 이착륙 경험 유지 △이착륙 경험 3회 미만 조종사가 포함된 편조는 기상제한치 강화 등 제한사항 적용 △항공사는 조종사 기량저하 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위험평가를 실시 하고 관련 보완대책 마련 등의 위험경감방안을 시행해야 하고,

- 또한 모의비행장치 사용 등이 가능해질 경우, 완화조치는 즉시 해제할 것도 명시하였습니다.

□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가 운용하는 항공기 기종은 대부분 국내에 모의비행장치(11개 기종, 40대)를 확보하고 있으나,

○ 아시아나 A380은 국내에 모의비행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ICAO 지침에 따라 공기비행으로 일부 교관급 조종사를 자격 유지 하고, 나머지 조종사는 자격이 있는 교관 조종사와 편조를 통해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

□ 이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A380 운항재개에 대비한 최소 인원의 자격 유지를 위해 아시아나가 신청한 A380 공기비행 훈련 계획(교관급 조종사 8명)*을 최근 승인하였으며,

* 5월중 인천공항 인근 서해 훈련공역에서 약 3일간 실시 예정

○ 원활한 훈련 시행을 위해 서해상 훈련공역 사용 협조,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면제 등을 적극 지원조치 하였습니다.

□ 이와 동시에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태국 소재 A380 모의 비행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 목적 입국허가 방안을 외교부 및 태국 정부 등 해당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.

- 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 지원과 더불어 항공기 운항안전도 흔들림 없이 확보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. 끝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최진호 사무관(☎ 044-201-431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